

목포 경제 살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시급

선창·조선 양대 경제축 위기 속 가공산업으로 체질 개선

해양 융·복합벨트 최대 현안...대양산단 분양에도 큰 도움

목포 지역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선창 경기와 조선경기가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산식품 수출단지 등 해양 융·복합벨트 사업이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수산업계는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산식품 가공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해 새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목포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연안에 위치한 전남도는 전국 어업 생산량의 47.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어업 생산지로 부산·울산·경남의 35.6% 보다 높다. 하지만 수산식품 가공과 유통업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전남도의 가공 산업 점유율은 18%로 경남권의 36%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공 산업의 61.6%를 해조제품이 차지할만큼 단조롭다.

국내 수산 가공업체 수는 1265개, 유통업체 수는 3960개(2015년 말 기준)에 달하지만 대다수가 영세업체다.

또 중국 수산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00만여 톤을 기록했고 지

난 10년 동안 수입량이 매년 4.4%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 중국 수출 수산물은 한국산 조미 김이 80%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조미 김의 원료인 물김 전국 생산량은 41만 톤으로 76%인 31만톤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 내 수산물 소비량이 매년 3.4%씩 성장하고 있고 한국 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전남 수산식품 수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반드시 목포 대양산단에 조성돼야 한다는 게 목포시와 전남도의 주장이다.

여기에 중국 상해와는 국내 최단거리라는 지리적 강점과 항만·공항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 융·복합 기업 유치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해 왔고 새 정부 이낙연 총리의 전남지사 재직시절 공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최창호 대양산단(주) 대표이사(좌)가 최근 수산식품 수출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설명회 및 현장 조사차 대양산단을 방문한 KDI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역 수산 업계에 따르면 물김(3.3kg)이 2950원인 반면 이를 가공한 마른 김(100정)은 3570원, 조미 김(100정)은 1만5600원으로 수산물 가공단계별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산식품 가공 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대양산단은 무안공항, 목포항(신항,북항), 서해안 고속도, KTX 등 육해공 모든 면에서 접근성이 용이해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최적지로 꼽힌다.

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목포시 현안인 대양산단 분양율 10% 상승은 물론 목포권 경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지가 조성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되고, 수산물 수출의 시너지 효과에 따른 수산경기 활성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수산식품의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가 목포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목원동 일대의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주황색 계열로 지붕을 일괄 도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원도심 주택, 목포만의 색 입힌다

지붕·벽면 주황색 도색 착수

목포 원도심이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목포를 상징하는 고유색(色)을 입는다.

목포시는 29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하고 노후화된 주거지 경관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 내 경관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중류(1Zone) 구역의 건물 지붕과 노후 벽면을 주황색 계열로 일괄 도색하는 것으로, 1차로 사업비 6

억원을 들여 구역 내 629호 가운데 120호를 선정해 지붕을 색채 디자인으로 꾸미게 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목포시는 주민 참여형 마을기업을 육성한데 이어 지난 18일 9개 마을기업과 사업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주거지·케이블카 조망권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 동의를 받은 1차 구역만 우선 시행하게 됐다”면서 “지난 25일부터 사업에 착수해 오는 6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교도소, 수용자 정서함양 위한 연극 공연 선사



목포교도소가 최근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체험을 위해 수용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극 공연을 선사했다. <사진>

이번 공연은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대표작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으로, 식막하고 때 많은 이 세상을 비웃을 같이 정화시키는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해 갈채를 받았다. 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연극은

교정시설에 들어오기 전에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연극을 볼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삼재 목포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문화행사를 통해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남은 수용생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전한 감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중학생 역사 퀴즈왕 누구? ...목포교육청 예선 대회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미)은 “최근 목포예향중학교에서 목포, 해남, 완도, 진도, 신안 지역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남 중학생 역사 퀴즈왕 예선대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역사 퀴즈왕 대회는 한국사과 독도, 동북공정 등 역사 현안 문제를 비롯한 지역 역사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고, 재치와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박선미 교육장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역사교육은 더욱 중요하며, 바른역사

의식을 가진 인재만이 세상과 미래를 읽는 힘이 있고 자기 정체성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독서, 토론 등 학생활동 중심의 역사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중학생 역사 퀴즈왕 대회는 전남도교육위원회 주관으로 목포권, 광양권, 순천권, 나주권, 장흥권 등 5권역에서 20명씩 100명을 선발해 오는 6월 9일 본선이 치러진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침수 예방 비상가동체계 돌입

6~8월 특별대책기간 설정

목포시가 우수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 하수과는 남해배수펌프장 등 6개 펌프장의 24시간 가동체계에 돌입하는 한편 지난달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또 침수 방지를 위해 비수갑문 5개소(49련)과 하수 문 36개소(52련)의 가동상태 유무 점검을 실시해 배수문 2개소에 대한

보수도 마쳤다.

특히 관내 주요 도로 침수에 대비해 터미널 주변 대하수도와 배수로를 준설·정비한데 이어 7개 상습 침수지역의 우수받이 등 하수시설물 사전 점검을 물론 고지관로 3개소에 대한 역 사이펀 준설을 끝냈다.

이와 함께 시는 삼향천 등 8개소의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임성천 984m를 준설하

고 삼향천 상류 수초와 갈대 베기, 수질정화시설 오니준설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권장주 목포시 하수과장은 “침수의 주원인인 하수도·우수받이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시 중점관리지역과 배수펌프장 전 직원 비상가동 체계를 유지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